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이 5-6세 유아의 혼합 인종 범주화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Other-Race Perceptual Individuation Training on Five- to Six-Year-Olds' Categorization of Mixed-Race Faces

강은¹ 박유정²

Eun Kang¹ Youjeong Park²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five- to six-year-old children's categorization of mixed-race faces and how it was affected by perceptual individuation training (PIT) for other-races.

Methods: Sixty-five children attending classes for 5-year-olds in childcare centers were shown happy and angry faces of Korean and African American mixed-race people, along with neutral faces of Korean and African American monoracial people. They were asked to categorize the faces into same-race or other-race. After the pretest, participants received a PIT for either African American (other-race) or monkeys. Then the racial categorization task was administered again as a posttest.

Results: Children showed no general tendency to categorize mixed-race faces as out-group in the pretest. Yet, the PITs further reduced children's categorization of mixed-race faces as out-group. In particular, the effect was clearly evident in children who received the PIT for other-race.

Conclusion/Implic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endency to categorize mixed-race faces as an out-group may not be evident in early childhood and that experiences of perceptually identifying other-race individuals may help children view mixed-race individuals as being in the in-group, at least perceptually.

key words five- to six-year-old children, perceptual individuation training, mixed-race categorization, in-group, out-group

¹ 제1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생

²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 youjeongpark@snu.ac.kr)

I. 서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종의 다양성이 낮고 단일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2011년 약 151,000명으로 집계되었던 만 18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은 2020년에 약 263,000명으로 집계되었다(행정안전부, 2011, 2021).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차별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실시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또래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2%로, 2015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 결과에 비해 2.3%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2019).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엄마와 아빠의 나라 어디를 가도 이질적 존재, 즉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받는다는 어려움을 보고하며(이진한, 김금이, 2021) 또래에 의해 이름 대신 나라 이름으로 불리고(김향미, 2012; 홍석호, 2018) “너희 나라로 가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김향미, 2012). 특히 한국인과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인종 아동의 경우 언어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조차 눈, 코, 피부색 등 외모에 대해 또래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한다(조형숙, 2015). 더구나 외형상 별 차이가 없는 중국인,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혼혈 아동보다 백인, 흑인, 동남아시아인 등 타인종과 한국인 간의 혼혈 아동은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눈, 코, 피부색을 가지고 있어 더욱더 또래에 의한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김성환 등, 2005). 이상의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인과 타인종 간의 혼혈 인종, 혹은 다문화가정 아동을 내집단(ingroup)인 한국인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혼합 인종을 내집단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향은 미국,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에게서 나타나지만(Dunham et al., 2013; Halberstadt et al., 2011; Ho et al., 2013; Roberts & Gelman, 2015), 이러한 경향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발달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일부 학자들은 백인이 흑인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연합되는 것과 같은 인종과 사회적 지위 간 연합이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Chao et al., 2013; Ho et al., 2020). 인종과 연합된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고는 학령기가 되어야 확립된다는 연구결과(Kinzler & Dautel, 2012)를 감안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은 학령기 이상의 아동에서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설명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인간의 학습과 범주화의 인지적 기제가 가지는 특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본다(Halberstadt et al., 2011). 즉, 인간은 먼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수집단(majority-group) 구성원의 특징들을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나서 소수집단(minority-group) 구성원의 특징들을 학습한다(Kruschke, 1996, 2003). 마주치는 빈도가 높은 범주의 구성원에 대해 먼저 학습이 일어나면, 마주치는 빈도가 낮은 범주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은 새로운 범주가 이전에 학습한 범주에 비해 구별되는 특징에 주의(attention)를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 범주의 특징으로 이미 학습된 특징들은 비록 그것이 소수 범주에도 나타날지라도 무시되고, 소수와 다수를 가르는 특징에 주의의 초점이 맞추어진다(Halberstadt et al., 2011; Kruschke, 1996, 2003). 이러한 주의전환 기제에 의해 혼합 인종의 얼굴을 지각할 때 자신의 인종(내집단)과 구별되는 특징(예: 코 모양, 눈, 피부색 등)에 더 가중치를 두게 되며 그 결과 혼합 인종의 얼굴을 내집단보다는 외집단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Halberstadt et al., 2011).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아직 인종과 사회적 지위 간 연합을 학습하기 전인 유아기 아동도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만 4-6세 백인 아동은 백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이 부모에 대한 추가 정보 없이 제시된 경우, 이를 내집단(백인)보다 외집단(흑인)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Roberts & Gelman, 2015).

국내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된 인종 관련 연구는 인종이 비교적 명확한 단일인종(monoracial)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유아가 언제부터 어떤 특징(예: 피부색)을 단서로 인종을 구별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이문정, 2009; 이정민, 이강이, 2014; 장영희 등, 1999). 또한 인종차별이나 편견에 관한 연구가 흑인, 백인, 황인 등 단일인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방희정 등, 2010; 이문정, 2009; 장영희 등, 1999; 조희진, 2015). 그러나 혼합 인종 개인을 유아들이 어떻게 지각적으로 범주화하는지, 또는 혼합 인종에 대한 유아의 편견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에서 점차 혼합 인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과, 개인에 대한 지각적 처리(perceptual processing)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리(social processing), 즉 사회적 편견과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perceptual-social linkage hypothesis; Lee et al., 2017)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혼합 인종에 대한 아동의 차별 및 편견 발생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혼합 인종의 지각적 범주화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흑인, 백인, 황인 등 인종을 잘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 5-6세 유아를 대상으로(이문정, 2009), 이들의 혼합 인종 범주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는 소수 인종에 속하며 황인과 육안으로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흑인(김성환 등, 2005)을 중심으로, 흑인과 한국인 간의 혼합 인종 범주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한국 유아들이 황인보다 흑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 나타났지만(방희정 등, 2010; 이문정, 2009; 장영희 등, 1999; 조희진, 2015), 한국인-흑인의 혼합 인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유아가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을 내집단보다 외집단으로 지각적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인-타인종 혼합 인종에 대한 편향 발달의 기초가 유아기에 관찰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아의 혼합 인종 범주화는 혼합 인종의 얼굴이 제시되는 방식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Dunham et al., 2013; Xiao et al., 2015). 비록 단일인종에 대한 명시적 편견에서 표정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지만(조희진, 2015), 국외연구에서 3-5세 유아는 인종이 모호한 얼굴이 제시되었을 때 화난 표정으로 제시된 경우보다 웃는 표정으로 제시된 경우에 이를 더 자신과 같은 인종, 즉 내집단으로 범주화했다(Dunham et al., 2013; Xiao et al., 2015).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생후 9개월 영아들(Xiao et al., 2018)은 긍정적 정서의 음악을 자신과 같은 인종의 얼굴과, 부정적 정서의 음악은 자신과 다른 인종의 얼굴과 연합시키는 편향을 보였다(Xiao et al., 2018). 이러한 편향은 두 인종이 혼합된 인종의 지각적 범주화에서도 혼합 인종이 보이는 정서표현에 따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유아는 웃는 얼굴로 제시된 혼합 인종보다 화난 얼굴로 제시된 혼합 인종을 외집단(타인종)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아의 혼합 인종 범주화를 조사한 국외 선행연구(Roberts & Gelman, 2015)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테스트하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혼합 인종의 정서표현을 조작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의 얼굴을 웃는 표정의 얼굴과 화난 표정의 얼굴, 두 가지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범주화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외부의 중재를 통해 다문화인구나 타인종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김선애, 한중화, 2017; 유향선, 2013; 황신혜, 김민진, 2013),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였다(박재욱, 이완정, 2012; 홍길희, 2014; 홍길희, 윤혜자, 2014). 그러나 선행연구의 중재들은 대부분 교육 기간이 상당히 길고 중재가 지각적 차원의 인종 인식에 대해서도 효과를 지니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이 다문화인구에 대해 가지는 명시적 편견이나 수용성이 감소되는

것도 중요하나, 의식적 통제가 어려운 지각적 인식이 다문화인구를 보다 내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e et al., 2017). 따라서 이러한 지각-사회 연결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보다 단기간에 실시할 수 있으면서 지각적 차원의 인종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재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개인이 동인종과 타인종의 얼굴을 지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 범주화-개별화 모델(categorization-individuation model; Hugenberg et al., 2010)에 따르면, 개인은 빈번하게 노출된 동인종에 대해서는 개별 얼굴을 식별하고자 하는 개별화 동기를 가지는 반면, 비교적 드물게 노출된 타인종에 대해서는 그 인종이 공유하는 특징(예: 피부색)에 따라 집단으로 범주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개별화 과정에서는 얼굴의 특징 중에서 여러 사례가 공통으로 보이는 특징인 범주 진단적(category-diagnostic) 정보보다 개별 정체성을 진단하는(identity-diagnostic)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반면에, 범주화 과정에서는 얼굴의 특징 중 사례들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예: 피부색)에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고, 그 결과 개별적인 얼굴 구별 능력이 감소한다(Hugenberg et al., 2010). 그런데 범주화-개별화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동인종과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처리 과정의 차이는 타인종의 여러 얼굴을 식별하는 연습을 통해 감소할 수 있다. 타인종의 지각적 개별화 연습은 주의가 타인종의 범주 진단적 특징에서 개인들의 고유한 얼굴 특징으로 전환되도록 하여(Hugenberg et al., 2010) 타인종의 얼굴을 범주적 수준이 아닌 개인적 수준에서 인식되도록 할 수 있다(Qian et al., 20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alberstadt 등(2011)에 의하면 혼합 인종의 얼굴을 내집단보다는 외집단으로 지각하게 되는 이유는 혼합 인종의 얼굴에서 자신의 인종(내집단)과 구별되는 타인종의 특징에 더 가중치를 두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종의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통해서 타인종의 범주 진단적 특징에 대한 주의가 감소하고 개인의 고유한 특징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는 혼합 인종에 대한 지각에서 타인종의 범주적 특성을 덜 지각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지만, ‘화남 = 외집단(angry = outgroup)’ 패러다임을 통해 측정된 중국과 미국 유아의 암묵적인 인종 편향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의 효과가 있음이 발견되었다(Qian et al., 2017, 2019; Xiao et al., 2015). 따라서 이러한 중재가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편향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지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의 범주화를 살펴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유아의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범주화가 흑인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에 의해 변화하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각적 개별화 연습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한 집단을 어떠한 개별화 연습도 실시하지 않은 집단(Qian et al., 2017)이나 동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실시한 집단(Xiao et al., 2015)과 비교하였다. 어떠한 개별화 연습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과 비교하는 경우, 연구결과로 나타난 집단 간 차이가 반드시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의 효과가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이든 지각적으로 개별화하는 연습을 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동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실시한 집단과 비교하는 경우는, 동인종의 경우 유아가 이미 지각적으로 개별화를 잘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 집단과 비교할 통제집단으로, 영장류, 그 중에서도 인간이 영아기에 식별 능력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것으로 알려진 원숭이(Pascalis et al., 2002)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실시하는 집단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유아는 만 5세가 되어야 인종 간의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문정, 2009; 이정민, 이강이, 2014). 또한 Xiao 등(2015)의 연구에서 만 4세에서 6세 유아는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해당 연습이 ‘화난 얼굴 = 외집단’ 패러다임으로 측정된 암묵적 인종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5-6세 유아를 연구참여자 연령으로 선정하여 (1) 한국인-흑인의 혼합 인종 얼굴을 한국인보다 흑인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2) 흑인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이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을 흑인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감소시키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만 5-6세 유아들이 한국인과 흑인의 혼합 인종 얼굴을 내·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은 혼합 인종 얼굴의 표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흑인 얼굴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은 우리나라 만 5-6세 유아들의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범주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의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학급에 다니는 만 5-6세 유아 총 65명(실험집단 32명, 통제집단 33명)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유아를 대상으로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의 효과를 알아본 선행연구(예: Qian et al., 2017, 2019)에서 집단별로 16~28명을 테스트했다는 점과, G*Power 3.1.9.4를 사용해 산출한 필요 표본 크기가 54인 점을 바탕으로 정하였다(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의 효과크기 effect size $f = 0.25$, $\alpha = .05$, 집단 수 = 2, 측정 수 = 2인 경우). 성별 분포는 남아 33명(51%), 여아 32명(49%)으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연령 범위는 만 5.00-6.99세, 평균 연령은 5.81세($SD = 0.44$ 세)였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온라인 육아카페를 통해 모집되었다. 연구자로부터 연구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명문과 동의서를 읽은 후 자녀의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부모의 자녀에 한해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이전에 유아가 타인종을 개별화한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타인종과의 접촉 및 개별화 경험 질문지’(Walker et al., 2008)를 작성하도록 했다. 해당 질문지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흑인을 접하는 빈도와 흑인과의 개인적인 상호작용 경험에 관한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예: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흑인을 자주 보는지

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 유아가 흑인 친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는 경험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 응답을 확인해 타인종과의 접촉 및 개별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유아만 본 연구의 최종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참여자의 지역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지역별 분포 (N = 65)

지역	빈도	백분율
서울특별시	2	3.1
수원시	1	1.5
경기도 성남시	5	7.7
안양시	1	1.5
일산시	1	1.5
인천광역시	2	3.1
부산광역시	3	4.6
대구광역시	1	1.5
안동시	45	69.2
경상북도 포항시	1	1.5
영주시	1	1.5
봉화군	1	1.5
전라북도 익산시	1	1.5
합계	65	100.0

2. 연구도구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유아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연구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의 모든 도구 및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2007/002-030).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http://eunkang.site>) 및 개별 연구참여자에게 할당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호자에게 알려주었다. 보호자는 약속된 시간에 가정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 또는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 중 한 가지로 연구자가 알려준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 유아가 실제로 과제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 과제 수행에 관한 보호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와 보호자가 음성 전화로 연결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가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과제 시작 직전에 보호자에게 연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하고 진행 방법을 안내하였다(예: “이 연구는 유아가 여러 얼굴을 어느 인종으로 범주화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보호자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지시문을 00(아동 이름)에게 읽어주시고, 00는 그 지시문대로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모든 유아는 사전검사, 지각적 개별화 연습, 사후검사의 3단계를 거쳤다. 이는 유아의 흥미를 위해 홈페이지 상에서 ‘첫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마지막 미션’으로 표기되었다(그림 1과 그림 2 참고). 연구자는 보호자와 유아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음성 통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문이 있을 경우 답을 제공하고 또한 유아가 연구 참여 도중에 그만 두고 싶어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완료하는 데 소요

되는 시간은 유아마다 차이가 있어 약 1분에서 5분 사이를 나타냈고, 사전검사와 지각적 개별화 연습, 사후검사를 모두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사이였다.



그림 1. 연구참여 홈페이지(좌: 로그인 전, 후: 로그인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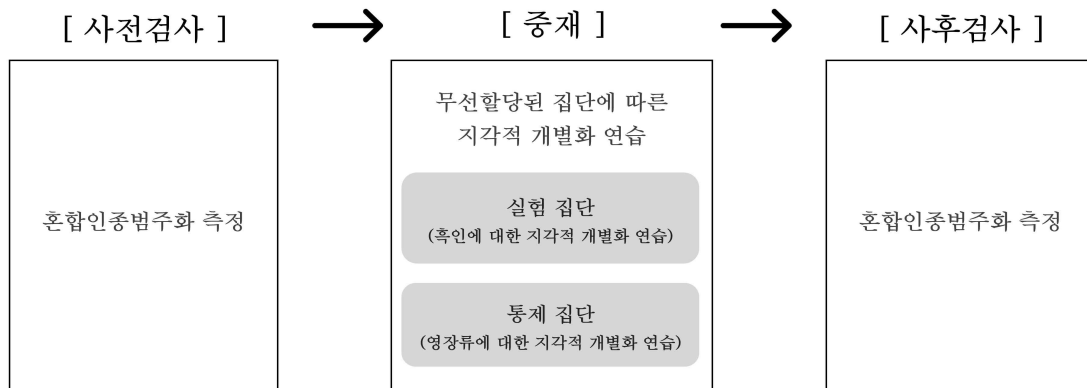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절차

1) 사전검사(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

유아의 혼합 인종 범주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Xiao 등(2015)이 사용한 인종 범주화 과제(racial categorization task)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제시된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고 이를 내집단(연구참여자와 같은 인종)과 외집단(연구참여자와 다른 인종)으로 분류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는 연습 문항 4개와 테스트 문항 40개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에서 얼굴 한 개가 화면 중앙에 제시되고, 유아가 이를 한국인 또는 흑인, 둘 중 하나로 분류하는 선택강요(forced-choice) 형식이였다.

제시된 얼굴 사진은 그림 3과 같이 합성되지 않은 한국인 사진과 흑인 사진, 그리고 한국인과 흑인 사진을 합성하여 만든 혼합 인종 사진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인의 얼굴 사진은 연구자가 모델을 직접 섭외하여 초상권 사용 동의서를 받은 후 촬영하였다. 흑인의 얼굴 사진은 Chicago Face Database(Ma et al., 2015)를 사용하였다. Chicago Face Database란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한 연구진이 연구에서의 사용을 위해 제작한 얼굴 사진 데이터베이스로, 흑인 남성과

여성의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사진 자극은 만 20세에서 37세 사이 연령의 얼굴이었고, FaceGen Modeller Core 3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정면을 응시하는 각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특히, 혼합 인종의 얼굴은 해당 소프트웨어의 트윈(tween) 기능을 활용해 한국인의 얼굴과 흑인의 얼굴을 50% 비율로 합성해 제작하였다. 혼합 인종의 얼굴 표정은 같은 소프트웨어의 표정(expression) 기능을 이용해 각 혼합 인종 얼굴에 대해 웃는 표정과 화난 표정을 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웃는 표정은 강도를 1부터 10까지의 단계 중 6수준으로 설정하였고, 화난 표정은 이를 보았을 때 유아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서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중 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표정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Adobe Photoshop 2020 소프트웨어의 클리핑 마스크 기능으로 머리카락이나 액세서리(머리띠, 귀걸이 등)가 보이지 않도록 얼굴 부분을 가로 세로 비율이 2.27 : 2.85인 타원형으로 잘라내었다. 얼굴 자극의 해상도는 모든 사진에 대해 인치당 300 pixel로 통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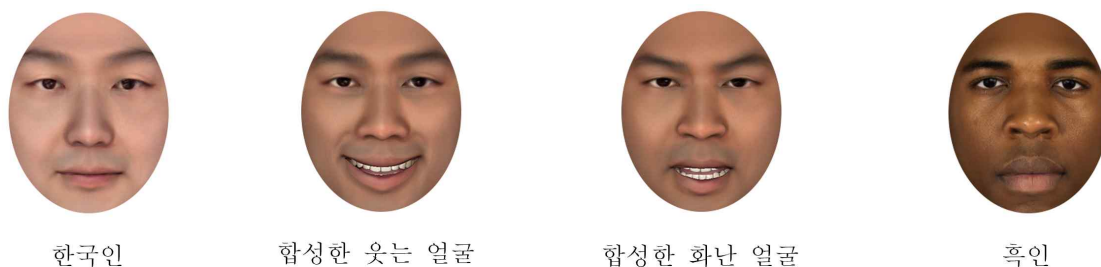


그림 3. 인종 범주화 과제에서 사용된 얼굴 자극 예

연습 문항 시작 전, 화면에는 “자, 이제부터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 친구는 화면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한국인 같은지 흑인 같은지 맞춰 보세요.”라는 지시문이 제시되었다. 보호자는 지시문을 아동에게 읽어주었고, 유아가 준비되었다고 하면 보호자가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연습 문항을 시작하였다. 유아는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는 한국인 얼굴 2개(남 1, 여 1), 흑인 얼굴 2개(남 1, 여 1)를 한국인 또는 흑인으로 범주화하였다(그림 4 참고). 유아가 응답할 때마다 정답 여부가 화면 중앙에 표시되었고,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X가 표시된 후 해당 얼굴이 화면에 다시 제시되어 유아가 다시 답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연습 문항에 대해 아동이 정답을 맞혀야지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갔다. 연습 문항 4개가 모두 끝나면 “연습이 끝났습니다. 그림 이제 실제로 해 볼게요. 이제부터는 정답 여부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제시되고, 보호자가 ‘다음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인 테스트 문항으로 넘어갔다.

테스트 문항에서 유아는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는 40개의 얼굴을 범주화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유아는 한국인 얼굴 10개(남 5, 여 5), 흑인 얼굴 10개(남 5, 여 5), 한국인과 흑인을 합성한 혼합 인종의 웃는 얼굴 10개(남 5, 여 5), 화난 얼굴 10개(남 5, 여 5)를 무작위 순서로 제시받고 범주화하였다. 연습 문항에서처럼 보호자가 유아에게 지시문을 읽어주고, 유아가 소리 내어 답하는 대로 보호자가 버튼을 눌러주었다. 그러나 연습 문항과 달리 테스트 문항에서는 유아의 응답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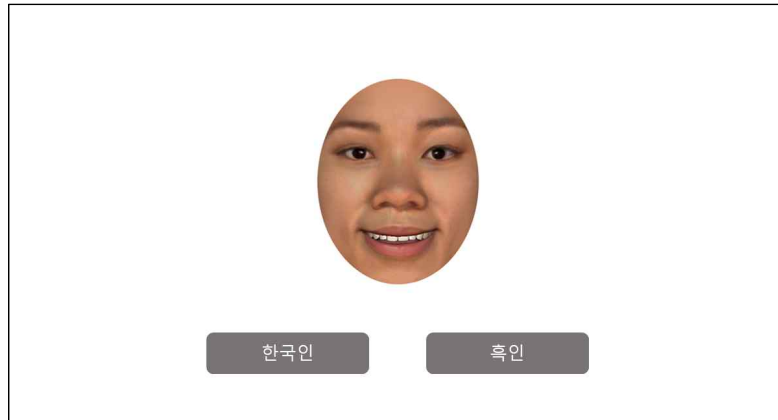


그림 4. 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 예시

테스트 문항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자동으로 연구자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상의 스프레드시트에 기록, 저장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각각에 대해 유아가 한국인과 흑인 얼굴을 합성한 혼합 인종 얼굴을 외집단, 즉 흑인으로 범주화한 비율을 산출하였다. 따라서, 유아 1명이 받을 수 있는 혼합 인종 범주화 점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로, 그 수가 클수록 한국인과 흑인을 합성한 혼합 인종 얼굴을 흑인으로 분류한 비율이 높음을 의미하였다.

사전검사(첫 번째 미션)가 끝나면 유아는 자동으로 실험집단(흑인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 집단) 또는 통제집단(영장류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 집단)에 무선할당되었고, 유아와 보호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버튼을 화면상에서 클릭하면 지각적 개별화 과제(두 번째 미션)가 시작되었다.

2) 지각적 개별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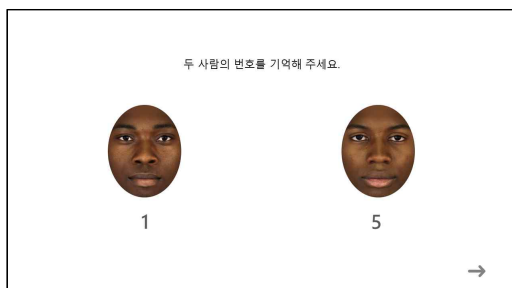
지각적 개별화 과제는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개별 사례들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개별 사례에 노출하는 과제(Lebrecht et al., 2009; Qian et al., 2017, 2019; Xiao et al., 2015), 학습 단계와 명명 단계로 이루어진 총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Qian et al., 2019; Xiao et al., 2015)와 동일한 절차로, 지각적 개별화 과제에서 유아는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5개의 사례를 보고 각 사례에 부여된 번호를 기억해야 했다. 여기서 하나의 범주란 실험집단에게는 흑인이었고 통제집단에게는 영장류였다. 통제집단에게 영장류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실시한 이유는 어떤 사례들을 지각적으로 개별화하는 활동 자체가 가지는 효과와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의 효과를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지각적 개별화 과제에서 사용된 흑인 자극은 인종 범주화 과제에서 사용된 자극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생성된 별도의 얼굴로 구성되었다. 영장류 자극은 Freepik.com에서 원숭이의 머리 부분 사진을 내려받은 후 Adobe Photoshop 2020을 통해 흑인 자극과 유사한 크기로 편집하였다. 해상도는 인치당 300 pixel로 통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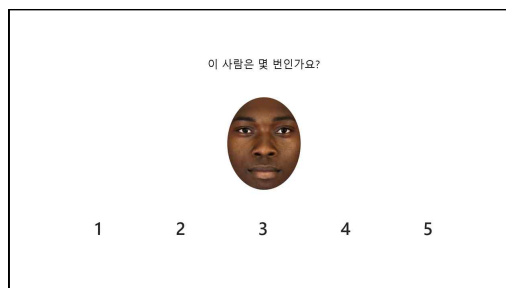
그림 5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가 실시한 지각적 개별화 과제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먼저 학습 단계에서 실험집단 유아는 5개의 흑인 얼굴을 식별하는 연습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5명의

흑인 중 2명의 얼굴이 화면에 무작위로 제시되고, 각 얼굴의 하단에 1부터 5까지의 숫자 중 하나가 번호로 제시되었다. 유아는 각 얼굴의 번호를 기억하도록 안내받았다(그림 5 참고). 먼저 보호자가 화면에 나타난 지시문을 유아에게 읽어주었다(“이제 화면에 두 얼굴이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는 화면에 나오는 얼굴을 잘 보고, 각각의 얼굴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를 기억해주세요. 다 기억했다고 생각하면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유아가 화면에 제시된 두 가지 사례를 모두 기억했다고 하면 보호자는 ‘다음으로’ 단추를 눌렀고, 이후 명명 단계가 시작되어 유아가 학습한 두 얼굴이 무작위 순서로 하나씩 제시되고 얼굴 하단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모두 동시에 제시되었다. 그리고 유아는 제시된 얼굴의 번호가 무엇인지를 질문받았다. 이 과제는 유아가 흑인이라는 범주의 구체적 사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유아가 응답하면 정답 여부가 화면 중앙에 O와 X로 표시되었다. 유아의 답이 틀린 경우에는 다시 학습 단계로 돌아가 다시 한번 자극을 보고 학습, 그리고 명명을 하도록 하였다. 다음 블록은 이전 블록에서 보았던 얼굴 중 1개와 새로운 얼굴 1개를 제시하고 익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통제집단 과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즉, 제시되는 사진이 영장류의 사진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모두 실험집단 과제와 동일하였다. 유아마다 무선할당된 집단에 따라 흑인 또는 영장류의 지각적 개별화를 수행하고 나면 사후검사용 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 시작 단추가 나타나고, 유아와 보호자가 이를 누름으로써 사후검사가 시작되었다. 지각적 개별화 과제에서 명명 단계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상의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저장되었다.



[실험집단] 학습 단계



명명 단계



[통제집단] 학습 단계



명명 단계

그림 5. 지각적 개별화 과제 예시(상: 실험집단, 하: 통제집단)

3) 사후검사(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

사후검사 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한편, 사후검사에 사용된 자극은 사전검사에 사용된 자극과는 다른 세트로 구성되었다. 어떤 세트를 사전검사, 사후검사로 사용할지는 역균형화되어, 연구참여 유아의 약 절반은 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 세트 A를 사전검사에서 세트 B를 사후검사에서 제시받고, 나머지 절반의 유아들은 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 세트 B를 사전검사로 세트 A를 사후검사로 제시받았다.

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으로 기술통계, t -검정,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사전(Pretest) 혼합 인종 범주화

표 2는 집단(실험, 통제), 혼합 인종의 표정(웃는, 화난), 검사 시기(사전, 사후)에 따른 유아의 혼합 인종 범주화 점수(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한 비율)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먼저, 우리나라 만 5-6세 유아가 한국인과 흑인의 혼합 인종 얼굴을 흑인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일표본 t -검정으로 사전검사에서 나타난 혼합 인종 범주화 점수를 우연 수준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 범주화 점수는 평균 .34($SD = .26$)로, 우연 수준(0.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t = -5.15$, $df = 64$, $p < .001$). 즉, 유아는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을 한국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통제집단($M = .30$, $SD = .23$, $t = 4.99$, $df = 32$, $p < .001$)과 실험집단($M = .37$, $SD = .28$, $t = 2.57$, $df = 31$, $p < .05$)을 분리해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또한, 혼합인종의 표정 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웃는 표정($M = .34$, $SD = .27$, $t = 4.81$, $df = 64$, $p < .001$)과 화난 표정($M = .33$, $SD = .27$, $t = 5.09$, $df = 64$, $p < .001$) 모두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아들의 사전 혼합 인종 범주화 점수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그리고 표정 간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집단: 실험, 통제) × 2(표정: 웃는, 화난)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주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 집단 유아들과 통제집단 유아들은 혼합 인종 얼굴의 표정과 상관없이 사전에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을 범주화하는 경향에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두 집단의 혼합 인종 범주화에 있어서 사전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표 2. 집단, 표정, 검사 시기에 따른 유아의 혼합 인종 범주화 점수 (N = 65)

집단	표정	검사 시기		t
		사전 M(SD)	사후 M(SD)	
실험 (n=32)	웃는 표정	.37(.29)	.26(.26)	2.25*
	화난 표정	.36(.29)	.28(.27)	2.40*
	전체	.37(.28)	.27(.25)	2.71*
통제 (n=33)	웃는 표정	.30(.23)	.27(.27)	1.02
	화난 표정	.29(.24)	.26(.29)	.70
	전체	.30(.23)	.26(.27)	.92
전체 (N=65)	웃는 표정	.34(.26)	.27(.26)	2.43*
	화난 표정	.33(.26)	.28(.28)	2.02*
	전체	.33(.25)	.27(.26)	2.58*

* $p < .05$

t 값은 사전-사후 비교를 위해 실시한 대응표본 t-검정의 결과를 나타냄(양측검정).

2. 유아의 지각적 개별화 연습

지각적 개별화 연습 단계에서 유아가 개별화에 성공하기까지 총 몇 번의 시도(trials)를 하였는지를 분석한 결과, 흑인 얼굴에 대한 개별화 연습을 한 실험집단 유아들($M = 10.22, SD = 1.72$)이 영장류에 대한 개별화 연습을 한 통제조건 유아들($M = 9.33, SD = 2.00$)보다 더 많은 시도를 한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t = 1.92, df = 63, p = 0.60$).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유아가 비슷한 정도의 지각적 개별화 노력이 필요했음을 암시한다.

3. 유아의 사후(Posttest) 혼합 인종 범주화

마지막으로, 유아의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 범주화가 흑인 얼굴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아의 혼합 인종 얼굴 범주화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2(집단: 실험, 통제) × 2(표정: 웃는, 화난) × 2(검사 시기: 사전, 사후) 혼합설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검사 시기의 주효과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 = 6.86, df = 1, df = 63, p = .01$). 즉, 유아가 한국인과 흑인 간의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한 비율은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하기 이전($M = .33, SD = .25$)보다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한 이후($M = .27, SD = .26$)에 유의하게 낮았다($t = 2.58, df = 64, p = .01$).

분산분석 결과에서 집단과 검사 시기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지만($F = 1.84, df = 1, df = 63, p = .18$),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의 효과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집단별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사전에 비해 사후에 혼합 인종의 외집단 범주화 비율이 낮아졌는지를 재확인하였다. 그 결과, 타인종 즉 흑인의 얼굴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실시한 실험집단에

서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사전검사($M = .37, SD = .28$)보다 사후검사($M = .27, SD = .25$)에서 유의하게 낮았다($t = 2.71, df = 31, p = .01$). 이러한 결과는 혼합 인종의 얼굴표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 즉, 웃는 얼굴의 혼합 인종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비율도 사전검사($M = .37, SD = .29$)에 비해 사후검사($M = .26, SD = .26$)에서 유의하게 낮았고($t = 2.25, df = 31, p = .03$), 화난 얼굴의 혼합 인종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비율도 사전검사($M = .36, SD = .29$)에 비해 사후검사($M = .28, SD = .27$)에서 유의하게 낮았다($t = 2.40, df = 31, p = .02$). 그러나, 영장류를 식별하는 연습을 시행한 통제집단에서는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 얼굴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사전검사($M = .30, SD = .23$)에 비해 사후검사($M = .26, SD = .27$)에서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았다($t = .92, df = 32, p = .36$). 이러한 결과는 혼합 인종의 얼굴표정과 관계없이 나타나, 웃는 얼굴의 혼합 인종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비율도 사전검사($M = .30, SD = .23$)와 사후검사($M = .27, SD = .27$)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 = 1.02, df = 32, p = .31$), 화난 얼굴의 혼합 인종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비율도 사전검사($M = .29, SD = .24$)와 사후검사($M = .26, SD = .29$)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 = .70, df = 32, p = .48$). 이러한 결과는 그림 6에 시각적으로 나타나 있다.

요약하면, 유아가 흑인의 여러 얼굴을 식별하는 연습을 한 경우와 영장류를 식별하는 연습을 한 경우를 모두 합쳐서 보았을 때, 유아는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한국인-흑인의 혼합 인종을 흑인으로 분류하는 비율이 표정과 상관없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에는 흑인의 얼굴을 식별하는 연습을 한 집단에서만 그러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 이들이 감소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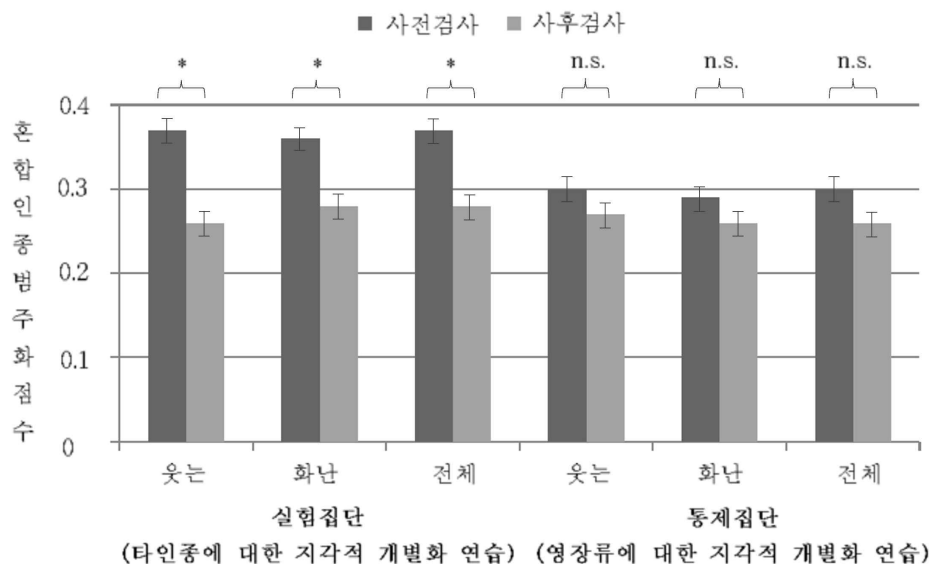


그림 6. 집단, 혼합 인종의 얼굴표정, 검사 시기에 따른 혼합 인종 범주화 점수

* $p < .05$

오차 막대는 ± 1 표준오차를 나타냄. n.s.는 유의하지 않은(not significant) 차이를 의미함.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5-6세 유아가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을 어떻게 범주화하는지를 혼합 인종의 표정에 따라 살펴보고, 이러한 범주화가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5-6세 유아는 아직 흑인과 한국인의 혼합 인종을 내집단보다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이는 혼합 인종의 표정과 상관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흑인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은 유아가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을 흑인으로 지각하는 것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적 개별화 연습 이전에 유아는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지 않고, 오히려 내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종인 백인이 4-6세에 백인-흑인 혼합 인종 개인을 백인보다 흑인으로 범주화한 연구결과(Roberts & Gelman, 2015)와 불일치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연구참여 이전에 흑인 및 다른 외국인과의 직접적인 일대일 상호작용 경험이 없었고, 반대로 한국인과의 접촉 경험은 풍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 인종의 얼굴에서 외집단의 범주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흑인으로 범주화하지 않은 것은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지각적 범주화하는 것이 범주 학습 순서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의 할당의 결과라는 이론적 주장(Halberstadt et al., 2011)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연구 자극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아가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나타낸 선행연구(Roberts & Gelman, 2015)는 백인과 흑인을 혼합한 인종의 얼굴 사진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유아들은 코의 넓이 등 다양한 특징에 기반해 인종을 구별하는 학령기 아동과 달리, 더 적은 수의 인종적 특징에 의존해 인종을 구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부색에 대한 의존이다(Dunham et al., 2013). 만일 유아들이 주로 피부색에 의존하여 내·외집단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Roberts와 Gelman(2015)의 연구에 참여한 백인 유아들에게 혼합 인종의 피부색은 자신들의 피부색과 지각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났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인-흑인 혼합 인종의 피부색은 유아의 내집단인 한국인의 피부색과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나타냈을 수 있다. 즉, 혼합 인종의 피부색이 여전히 한국인 범주 내에서의 피부색의 다양성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피부색에 주로 의존해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유아에게는 혼합 인종이 내집단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중국의 4-6세 유아의 암묵적 인종 편향을 살펴본 연구(Xiao et al., 2015)에서 나타난 유아의 범주화 수행과 일치한다. 해당 연구는 혼합 인종의 범주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인과 같이 동북아시아인에 속하는 중국인과 흑인을 합성한 인종적으로 모호한 얼굴을 화난 얼굴, 웃는 얼굴로 제시하고 유아들에게 범주화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은 표정과 관계없이 해당 얼굴을 중국인보다 흑인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혼합 인종의 구성에 따라 지각적 범주화에서 편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러한 가능성은 후속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테스트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혼합 인종의 얼굴 표정에 따른 범주화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 유아와 중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아들이 화난 얼굴을 웃는 얼굴보다 더 외집단과 연합시키는 암묵적 인종 편향을 보인 결과(Dunham et al., 2013; Xiao et al., 2015)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유아가 혼합 인종 얼굴을 오히려 내집단으로 인식한 경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4-6세 한국 유아들은 웃는 얼굴의 흑인보다 무표정한 황인을 더 선호한다는 조희진(2015)의 연구결과는 내집단에 대한 인식은 표정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암시한다. 또다른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혼합 인종의 화난 얼굴이 상대적으로 약한 정도의 분노 정서로 설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하기 전에 비해 연습을 실시한 후에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가능성이 감소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는 타인종 지각적 개별화 연습을 실시한 실험집단만이 이전에 비해 혼합 인종 외집단 범주화가 감소하고, 영장류를 지각적으로 개별화한 유아에게서는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행동의 감소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 범주화-개별화 모델(Hugenberg et al., 2010)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아는 타인종의 얼굴을 개별화하는 동안 타인종의 사례를 구별하는 데 유용한 얼굴 특징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타인종의 범주 진단적 특징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었을 수 있다. 그 결과, 이후에 실시한 혼합 인종 범주화 과제에서 혼합 인종의 개별적인 고유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행동이 더 줄어들었을 수 있다.

영장류를 지각적으로 개별화한 유아에게서는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행동의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음에도, 두 집단 모두 지각적 개별화 연습 이전에 비해 지각적 개별화 연습 이후 다소 혼합 인종을 외집단으로 범주화하는 빈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영장류의 지각적 개별화 과정에서도 개별 사례들의 차별적 특성에 주의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혼합 인종을 지각적 처리할 때도 개별 사례들의 독특한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각적 개별화 연습의 효과는 타인종의 여러 얼굴을 식별하는 연습이 ‘화남 = 외집단(angry = outgroup)’이라는 유아의 암묵적 인종 편향을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Xiao et al., 2015)에서 더 나아가, ‘혼합 인종 = 외집단(mixed-race = outgroup)’이라는 범주화 편향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각적 개별화 연습이 반드시 타인종에 대한 지각적 개별화 훈련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타인종(흑인, 백인, 동남아시아인)과의 접촉 및 개별화 경험을 통제하였으나, 혼합 인종 개인과의 접촉 및 개별화 경험을 통제하지 않았다. 다문화 아동이 증가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유아는 다문화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졌다. 다문화 또래와의 접촉 경험이 있는 유아들이 다문화 또래와 접촉 경험이 없는 유아들보다 흑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결과(Ouyang & Jahng, 2021)에 비추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혼합 인종에 대한 접촉 및 개별화 경험도 통제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얼굴 합성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학적으로 도출된 혼합 인종 얼굴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얼굴 자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아에게 다소 인위

적인 느낌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자극을 사용해 얻어진 연구결과가 현실에서 유아가 실제 혼합 인종 인물에 대해 범주화하는 것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로 두 인종을 합성한 후 머리카락을 없앤 혼합 인종 얼굴 자극에 대한 반응은 머리카락을 없애지 않은 자연스러운 자극보다 실제 혼합 인종에 대한 반응과 더 가깝다는 최근의 연구결과가 있다(Ma et al., 2022). 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의 유아의 반응이 실제 유아의 반응을 가까이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혼합 인종의 사진을 사용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거주지역은 경북 안동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다양한 혼합 인종 중 한국인과 흑인의 혼합 인종에 대한 범주화만 살펴보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인과 타인종의 혼합 인종의 얼굴을 지각적으로 범주화하는 양상을 처음으로 조사하고, 지각적 개별화 연습이 유아의 혼합 인종 범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초기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유아 대상 온라인 연구를 구현하고 온라인으로도 인종에 관한 인식에 대한 효과적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 또는 혼합 인종 아동에 대한 또래 아동의 인식 변화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한 가지로서, 유아가 피부색과 같은 범주공통적 특징을 기반으로 집단적 구분을 하기보다는 인종과 상관없이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보육현장에서 성인이 이끌어 줄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선애, 한중화 (2017).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 편견 및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2(4), 73-96. <https://doi.org/10.20437/KOAECE22-4-04>
- 김성환, 양재두, 최희철, 이의천 (2005). 혼혈아동들의 사회적 편견. **고려교육정책학**, 4(1), 97-111.
- 김향미 (2012.01.18.). “너희 나라로 가라” 이주아동 따돌림·폭력 피해 심하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201082143475>에서 2022년 3월 25일 인출
- 박재욱, 이완정 (2012). 결혼이주여성교사에 의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과 유아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또래와의 놀이성.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1), 45-64.
- 방희정, 노경란, 정수진 (2010).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125-140.
- 여성가족부 (2016. 01).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63_199.pdf&rs=/rsfiles/202204/에서 2022년 3월 31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9. 03).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http://www.mogef.go.kr/kor/skin/doc.html?fn=95571c9ad0c84d67af608f610afca498.pdf&rs=/rsfiles/202204/>에서 2022년 3월 31일 인출
- 유향선 (2013).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편견에

-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4), 137-164.
- 이문정 (2009). 유아의 인종에 대한 인식. **생태유아교육연구**, 8(3), 175-190.
- 이정민, 이강이 (2014). 유아의 인종적 신체 특징 인식, 외모와 언어 단서에 따른 내집단 범주화 및 선호도. **아동학회지**, 35(2), 85-102. <https://doi.org/10.5723/KJCS.2014.35.2.85>
- 이진한, 김금이 (2021.05.04.) “백인혼혈은 예능, 동남아혼혈은 다큐”. 차별에 멩드는 다문화2세. **매일경제**, <https://news.v.daum.net/v/20210504173900736>에서 2022년 2월 22일 인출
- 장영희, 이숙재, 김혜실, 김정화 (1999). 유아의 인종 인식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1), 95-110.
- 조형숙 (2015). 혼혈 다문화 아동의 리더러시 활동과 사회적 정체성. **언어와 문화**, 11(2), 291-317.
- 조희진 (2015).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조형미디어학**, 18(2), 275-286.
- 행정안전부 (2011. 09). **2011년 외국인주민 현황**. <https://mois.go.kr/synap/skin/doc.html?fn=20110926182617153064.xlsx&rs=/synapFile/202204/&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20110926182617153064.xlsx%26rs%3D%2FsynapFile%2F202204%2F&synapMessage=%EC%A0%95%EC%83%81>에서 2022년 3월 31일 인출
- 행정안전부 (2021. 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synap/skin/doc.html?fn=BBS_202203160357551245&rs=/synapFile/202204/&synapUrl=%2Fsynap%2Fskin%2Fdoc.html%3Ffn%3DBBS_202203160357551245%26rs%3D%2FsynapFile%2F202204%2F&synapMessage=%EC%A0%95%EC%83%81에서 2022년 3월 31일 인출
- 홍길희 (2014). 일과를 통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다문화 수용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313-332. <https://doi.org/10.14698/jkce.2014.10.6.313>
- 홍길희, 윤혜자 (2014). 국악장단을 적용한 크로스오버 음악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2), 21-41. <https://doi.org/10.14698/jkce.2014.10.2.021>
- 홍석호 (2018.11.23.) “이름 대신 외국인이라 불리며 따돌림 당해”.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123/92989017/1>에서 2022년 2월 22일 인출
- 황신해, 김민진 (2013). 위인그림책 읽기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3), 159-184.
- Chao, M. M., Hong, Y. Y., & Chiu, C. Y. (2013). Essentializing race: Its implications on racial 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4), 619-634. <https://doi.org/10.1037/a0031332>
- Dunham, Y., Chen, E. E., & Banaji, M. R. (2013). Two signatures of implicit intergroup attitudes: Developmental invariance and early enculturation. *Psychological Science*, 24(6), 860-868. <https://doi.org/10.1177/0956797612463081>
- Halberstadt, J., Sherman, S. J., & Sherman, J. W. (2011). Why Barack Obama is black: A cognitive account of hypodescent. *Psychological Science*, 22(1), 29-33. <https://doi.org/10.1177/0956797610390383>
- Ho, A. K., Kteily, N. S., & Chen, J. M. (2020). Introducing the sociopolitical motive × intergroup threat

- model to understand how monoracial perceivers' sociopolitical motives influence their categorization of multiracial peop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24(3), 260-286. <https://doi.org/10.1177/1088868320917051>
- Ho, A. K., Sidanius, J., Cuddy, A. J., & Banaji, M. R. (2013). Status boundary enforcement and the categorization of black - white biraci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5), 940-943. <https://doi.org/10.1016/j.jesp.2013.04.010>
- Hugenberg, K., Young, S. G., Bernstein, M. J., & Sacco, D. F. (2010). The categorization-individuation model: An integrative account of the other-race recognition deficit. *Psychological Review*, 117(4), 1168-1187. <https://doi.org/10.1037/a0020463>
- Kinzler, K. D., & Dautel, J. B. (2012). Children's essentialist reasoning about language and race. *Developmental Science*, 15(1), 131-138. <https://doi.org/10.1111/j.1467-7687.2011.01101.x>
- Kruschke, J. K. (1996). Base rates in category learning.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2(1), 3-26. <https://doi.org/10.1037/0278-7393.22.1.3>
- Kruschke, J. K. (2003). Attention in learn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5), 171-175. <https://doi.org/10.1111/1467-8721.01254>
- Lebrecht, S., Pierce, L. J., Tarr, M. J., & Tanaka, J. W. (2009). Perceptual other-race training reduces implicit racial bias. *PloS one*, 4(1), 1-7.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004215>
- Lee, K., Quinn, P. C., & Pascalis, O. (2017). Face race processing and racial bias in early development: A perceptual-social linkag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6(3), 256-262. <https://doi.org/10.1177/0963721417690276>
- Ma, D. S., Correll, J., & Wittenbrink, B. (2015). The Chicago face database: A free stimulus set of faces and norming data. *Behavior Research Methods*, 47(4), 1122-1135. <https://doi.org/10.3758/s13428-014-0532-5>
- Ma, D. S., Kantner, J., Benitez, J., & Dunn, S. (2022). Are morphs a valid substitute for real multiracial faces in race categorization resear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8(1), 95-104. <https://doi.org/10.1177/0146167221989836>
- Ouyang, J., & Jahng, K. E. (2021). The Moderating Effect of South Korean Children's Encounter with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Fathers' Percep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Racial Awareness. *Child Indicators Research*, 14(6), 2197-2210. <https://doi.org/10.1007/s12187-021-09832-1>
- Pascalis, O., De Haan, M., & Nelson, C. A. (2002). Is face processing species-specific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Science*, 296(5571), 1321-1323. <https://doi.org/10.1126/science.1070223>
- Qian, M. K., Quinn, P. C., Heyman, G. D., Pascalis, O., Fu, G., & Lee, K. (2019). A long-term effect of perceptual individuation training on reducing implicit racial bias in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90(3), 290-305. <https://doi.org/10.1111/cdev.12971>
- Qian, M. K., Quinn, P. C., Heyman, G. D., Pascalis, O., Fu, G., & Lee, K. (2017). Perceptual individuation

- training (but not mere exposure) reduces implicit racial bias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53(5), 845-859. <https://doi.org/10.1037/dev0000290>
- Roberts, S. O., & Gelman, S. A. (2015). Do children see in Black and White? Children's and adults' categorizations of multiracial individuals. *Child Development*, 86(6), 1830-1847. <https://doi.org/10.1111/cdev.12410>
- Walker, P. M., Silvert, L., Hewstone, M., & Nobre, A. C. (2008). Social contact and other-race face processing in the human brai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3(1), 16-25. <https://doi.org/10.1093/scan/nsm035>
- Xiao, N. G., Quinn, P. C., Liu, S., Ge, L., Pascalis, O., & Lee, K. (2018). Older but not younger infants associate own race faces with happy music and other race faces with sad music. *Developmental Science*, 21(2). e12537. <https://doi.org/10.1111/desc.12537>
- Xiao, W. S., Fu, G., Quinn, P. C., Qin, J., Tanaka, J. W., Pascalis, O., & Lee, K. (2015). Individuation training with other-race faces reduces preschoolers' implicit racial bias: A link between perceptual and social representation of faces in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18(4), 655-663. <https://doi.org/10.1111/desc.12241>

논문투고: 22.02.23

수정원고접수: 22.03.31

최종게재결정: 22.04.08